

LG-D,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담합

유럽, 휴대폰·TV·MP3용 TFT-LCD ... 삼성전자는 부과대상 제외

LG디스플레이 등 5사에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럽 반독점규제당국은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담합을 이유로 LG디스플레이와 타이완의 AU옵트로닉스 등 5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이 11월29일 발표했다.

한 소식통은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격담합이 드러난 관련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12월8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집행위는 가격담합이 드러난 해당기업들의 상호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세계 2위의 LCD(Liquid Crystal Display) 생산기업인 LG디스플레이와 3위 AU 옵트로닉스, 2위 치메이 옵토일렉트로닉스가 관련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3사는 2009년 7월 EU 관련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된 바 있다.

집행위 측의 가격담합 조사는 컴퓨터와 휴대폰 단말기, 텔레비전, 소형 계산기, MP3 플레이어에 이용되는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문건에는 타이완 유수의 패널 생산기업 Chungwha Picture Tube과 HannStar Display가 올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네덜란드의 필립스 역시 LG디스플레이의 전 주주기업으로 규제당국의 관련문건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LG디스플레이와 일본 샤프, 히타치, 중화영관 등은 미국 법무부가 실시한 가격담합 관련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 8억9000만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밖에 다른 국가의 규제기관들도 해당업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30>